

駕洛國의 建國神話와 祭儀

The Founding Myth and Ritual Ceremony of Karagkug(駕洛國)

저자 (Authors)	남재우 Nam Jae-Woo
출처 (Source)	역사와경계 67 , 2008.6, 31-62 (32 pages) History & the Boundaries 67 , 2008.6, 31-62 (32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경남사학회 Pusan-Kyungnam Historical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33872
APA Style	남재우 (2008). 駕洛國의 建國神話와 祭儀. 역사와경계, 67, 31-6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17 13:2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駕洛國의 建國神話와 祭儀*

남 재우 | 창원대학교 사학과
njw@changwon.ac.kr

I. 서론

가야의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는 가야의 정치사적 전개를 좌우하였을 가야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다. 따라서 가야인의 내면적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는 직접적으로는 가야문화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야사의 복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야인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신앙은 중요한 요소이다.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의 가야인의 신앙은 토착신앙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토착신앙에 대한 자료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신화가 신앙의 이론적 구조라고 한다면 제의는 신앙의 실천적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깊이 얽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¹⁾ 따라서 토착신앙에 대한 이해는 남아있는 신화와 제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금장태, 「한국고대의 신앙과 제의」 『동덕여대논총』 8, (1978), 5~19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駕洛國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락국의 건국신화와 제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전하는 가락국의 건국신화는 『三國遺事』 가락국기조의 내용이다. 가락국 건국신화는 김수로신화와 허황옥신화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신화는 가락국 건국 당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역사학계에서는 가락국 건국신화를 통하여 가야의 국가형성과정을 복원하려고 애써왔다. 따라서 가락국 건국신화가 역사연구자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어왔는지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김수로신화와 허황옥신화가 어떻게 전승되고 체계화되었는지도 살펴보겠다.

둘째, 가락국의 祭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다. 제의는 고대 신앙 속에서 신화와 분리될 수 없으며 신화 이후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신화 속에 제의가 보이고 있는 만큼 제의의 조직화 단계에서 신화도 체계화되고 고정화 되어왔으므로 제의를 살피는 것은 당시 사회의 생활모습과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로서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종교학이나 신화학, 인류학 등의 인접 학문의 연구성과를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건국신화와 제의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락국 건국신화의 체계화 과정에 대한 서술에 무게를 두다보니 가락국의 시작을 복원하는데는 소홀함이 있었다. 앞으로 계속 보강하도록 하겠다.

Ⅱ. 駕洛國 建國神話의 역사적 이해와 체계화 과정

1. 駕洛國 건국신화의 역사적 이해

한국 역사학계에서 한국의 건국신화는 신화의 성격에 대한 연구보다는 고대국가 형성기의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가락국의 건국신화는 가락국 혹은 가야사의 시작에 해당되므로 「가락국기」의 수로왕신화와 허황옥신화는 주목

의 대상이 되어왔다.²⁾

가락국 건국신화를 통해 가야사복원을 시도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은 다양하지만, “건국신화를 고대국가 형성기의 역사적 사실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신화가 허구는 아니다’라는 전제도 중요하지만 고대국가 완성기의 지배층이 시조전승에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정착시켰던 부분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배풀어졌던 후대적 윤색을 걸러보아야 한다”³⁾라는 명제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가락국 건국신화에 대한 여태까지의 역사학적 관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건국신화의 배경이 된 가락국의 개국연대가 언제인가?

둘째, 건국신화를 통하여 가야의 정치적 발전과정을 추론하고자 했다. 즉 ‘6관설’이 가야연맹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셋째, 가락국 형성의 주체는 누구인가?

넷째, 가락국 건국신화가 불교적으로 윤색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현전하는 「가락국기」의 건국신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전승되고 체계화되었는가?

먼저 가락국 개국연대는 「가락국기」에 建武 18년(42)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 가락국의 건국신화는 3세기 이후의 연맹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42년을 믿을 수 없

2) 최근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 김두진, 「가야 건국신화의 성립과 그 변화」, 『한국학논총』 19, (1996).
-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황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 백승충, 「가야의 개국설화에 대한 검토」, 『역사와 현실』 33, (1999)
- 백승충, 「가야 건국신화의 재조명」,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서울: 혜안, 2001).
- 이영식, 「가야인의 정신세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서울: 혜안, 2001).
- 이영식, 「대가락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김해시가야사학술회의』, (2002).
- 이광수, 「가락국 허황후 도래 설화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31, (2003)
- 남재우, 「가야의 건국신화의 제의」,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3) 이영식, 앞의 논문, (2002).

다.4) 그리고 『삼국지』와 『후한서』에 보이는 1세기 전반대의 廉斯鏹 설화를 근거로 염사치, 염사읍군 소마시의 출신지인 염사의 위치를 김해로 비정하여 기원전후 시기를 가락국 형성시기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며⁵⁾, 건무18년을 상한으로 삼고, 『三國志』 魏書東夷傳 韓傳의 景初 年間(237~239)에서 조금 올라가는 2세기 후반을 하한으로 설정하면서 목관묘와 목곽묘의 교체시기인 2세기 전반을 가락국 개국기년으로 추정하는 견해⁶⁾도 있다.

기원전후 또는 1세기초엽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⁷⁾ 수로라는 인물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성격을 시사하고 있고, ‘건무18년’이 그의 출현시기로 상정하고 있다면 大國으로서의 가락국의 성립은 기원 전후 남부지역에서의 활발한 대외교역과 본격적인 철기문화의 전개 등 선진적인 제요소와 관련시켜 기원전후를 가락국의 개국연대로 보기도 한다. 즉 김해지역에는 기원전후 내지 1세기 초엽에 漢郡縣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철자원의 개발, 철기제작기술의 보급, 대외교역의 전개 등과 관련하여 청동기 문화단계의 先住小集團을 통합하는 유력집단 즉 狗邪國(駕洛國)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가락국의 형성시기는 변한의 형성시기와 맞물려있다.

- 1) 辰韓은 馬韓의 동쪽에 있었는데 耆老들이 대대로 전하는 말에 옛날에 亡人들은 秦의 役을 피하여 韓國으로 왔는데 馬韓이 東界의 땅을 분할하여 주었다고 하였다.(『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 2) 侯 準이 참람되어 왕을 일컫다가 燕에서 망명한 衛滿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겨 左右의 冏人을 거느리고 바다를 통해 가서 韓地에 거주하며 스스로 韓

4)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서울: 박영사, 1985 수정판), 314~322쪽. 이병도는 수로를 연맹단계의 군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가락국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2세기대로 추정하였다.

5) 정중환, 「廉斯鏹說話考-加羅前史의 試考로서」 『대구사학』 7·8합집, (1973), 71~78쪽

6) 김태식, 『가야연맹사』 (서울: 일조각, 1993), 46~58쪽.

7) 이현해, 『삼한사회형성과정연구』, (서울: 일조각, 1984), 83~95쪽.
백승충, 『가야의 지역연맹사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1995), 60~69쪽.

王이라 하였다.(위의 책)

위의 기록들은 기원전 3~2세기경 북방으로부터의 이주민의 유입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보아 최소한 기원전 2세기에는 韓이라는 실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원전 2세기대에 삼한이 동시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韓族사회가 三韓으로 분리되는 시점을 진정한 의미의 삼한사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때 그 결정적 계기는 衛滿朝鮮系 집단의 南下일 것이다. 三韓의 토기가 모두 瓦質土器라는 廣義의 범주에 포함되에도 불구하고 馬韓과의 대비에서 辰弁韓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한 공통성, 昌原 茶戶里 1號墓 출토의 漆器 및 鬻의 존재, 진변한지역에서 자주 확인되는 西北韓지역의 문화요소 등은 진변한이 衛滿朝鮮과 연결된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⁸⁾ 따라서 弁韓諸國이 출현하는 시기는 늦어도 기원전 1세기대나 기원전후의 시기로 보는 것이 옳다.⁹⁾

弁韓의 형성은 흔히 加耶史의 시작으로 상정하는 狗邪國(駕洛國)의 형성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변한의 형성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사료이다.

- 3) 建武 20年(44년) 가을 東夷의 韓國人이 무리를 이끌고 樂浪으로 나아가 內附하였다. [東夷는 辰韓·下韓·馬韓이있는데 이를 三韓國이라 한다.] (『後漢書』 卷一下 光武帝紀 第一下)
- 4) 王莽의 地皇年間(20~23)에 廉斯鏹가 辰韓의 右渠帥가 되어 낙랑의 토지가 비옥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롭고 안락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서 항복하기로 하였다. ……鏹가 이때 진한에게 따지기를, “너희는 5백명을 돌려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낙랑이 만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배를 타고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니, 진한은 “5백명은 이미 죽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치르겠습니다”라고는, 진한인 만오천명과 牟(弁)韓布 만오천필을 내놓았다.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8) 권오영, 『삼한의 ‘국’에 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1996), 45~46쪽.

9) 남재우, 『안라국사』, (서울: 혜안, 2003), 50쪽.

위의 기록으로 보아 삼한은 최소한 1세기부터 역사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弁韓의 실재를 알려주는 최초의 사료는 4)의 내용이다. 이 기록은 구야국의 성립연대, 漢郡縣과 辰弁韓의 교역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보여진다. 변한이 1세기대에 실재하고 있었으므로 변한 12국중에서 유력한 정치집단이었던 구야국이 이 시기에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고학적 측면에서도 김해지역 良洞里, 禮安里 등지의 土壙墓 유적과 鎭海 熊川貝塚, 金海 會峴里貝塚 등의 생활유적 및 尙方鏡, 貨泉, 金海式土器(瓦質土器), 鐵器 등 유물의 등장을 주목하여 김해지역의 구야국 형성을 기원후 1세기 초로 추정되기도 한다.¹⁰⁾ 이렇게 볼 때 가락국의 형성시기는 늦어도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가락국기』의 건무18년(42)의 기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¹¹⁾

둘째, 가락국 건국신화를 통하여 가야의 발전을 연맹체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즉 가락국기의 ‘6란설’을 宗支關係에 따른 연맹체 형성의 근거로 삼거나, 가야의 또 다른 건국신화인 대가야 건국신화를 근거로 兄弟關係에 따른 연맹체로 설정하기도 한다.¹²⁾ 이러한 연맹체설은 시간적인 개념이 탈색된 신화를 가지고 연맹체를 설정하는 것은 지나친 문헌고증이라는 비판¹³⁾이 있었지만, 가야사를 둘러싼 ‘연맹체’ 논

10) 김정학, 「고대국가의 발달」 『한국고고학보』 12, (1982), 4~13쪽.

金廷鶴, 『任那と日本』, (日本: 小學館, 1977), 58~89쪽.

이은창, 「가야고분의 편년연구」 『한국고고학보』 12, (1982), 163~206쪽.

이현혜, 「진·변한지역 제소국의 형성」 『삼한사회형성과정연구』, (서울: 일조각, 1984), 83~95쪽.

백승충,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부대사학』 13, (1989), 17~27쪽.

11) 가락국의 성립시기를 기원전2세기~기원후1세기초반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 문화적 배경은 철기의 제작 내지 제철기술의 유입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영식, 「九干社會와 駕洛國의 成立」 『伽倻文化』 7, 가야문화연구원, (1994), 22~25쪽.

12) 이병도, 앞의 책, 307~313쪽

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¹⁴⁾ 그 이유는 6란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 자체가 당시 가야사회가 연맹체국이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건국신화가 加耶諸國 중에서 가락국과 대가야에만 현전하고 있다는 점, 특히 가락국과 대가야가 다른 가야제국에 비해 가야의 강력한 중심세력이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건국신화가 만들어진 것이 6란설, 아니면 형제관계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6란설’은 사실이 아니라 후대의 필요성에 따라 윤색되었으며, 가락국과 대가야의 건국신화만 남은 것은 가락국의 경우 통일에 기여했던 김유신가문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대가야의 경우 해인사 창건과 관련되어 신화가 체계화되었다. 처음부터 6란이 아니라 ‘1란’이었으며¹⁵⁾, 가락국과 대가야에 건국신화가 따로 있었던 것이 오히려 가야제국 모두가 건국신화를 가졌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13) 김태식, 『가야연맹사』, (서울: 일조각, 1993), 71~74쪽.

14) 가야연맹체에 대한 제견해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남재우, 「가야사에서 ‘연맹’의 의미」 『창원사학』 2, (1995).

주보돈, 「가야사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한국고대사연구회편, (경상북도, 1995)

김태식, 「가야연맹체의 성격재론」 『한국고대사논총』 10, (2000)

15) ‘1란’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① 열어서보니 황금알인데 그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무리들이 놀랍고도 기뻐하며 (알을)가지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탁자위에 놓았다. 다음 날 그 알이 쪼개지면서 열다섯 살쯤 되는 신동이 되었는데, 용모가 매우 훌륭했다. (『慶尙道地理志』 晉州道 金海都護府 靈異之跡條)

② 가서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상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해처럼 둥근 금색 알이 있었다. 아홉 사람이 절하고 그것을 신성스럽게 여기어 아도간의 집에 받들어 모셨다. 다음날 아홉 사람이 모두 모여 그릇을 열어보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태어났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절하며 경하하고 예를 극진히 하였다. 사내아이가 낳일이 자라서 10여일이 지나자 신장이 아홉 자나 되었다. 이달 보름날에 아홉 사람이 받들어 임금으로 모셨으니 곧 首露王이다.(『高麗史』 卷57 地理2 慶尙道 金州條)

③ 가서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금 그릇이 있고 그 가운데 해처럼 둥근 금색 알이 있었다.(중략)다음날 아홉사람이 모두 모여 그릇을 열어보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태어났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쯤 되었고 용모는 매우 훌륭하였다(『世宗實錄』 卷150 地理志 慶尙道 金海都護府條)

이해하기도 한다. 두 나라를 제외한 가야제국이 건국신화를 남기지 못한 것은 가락국과 대가야처럼 신화가 전승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¹⁶⁾

셋째, 가락국 건국신화의 두 주체인 수로왕과 허왕후의 출신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수로왕의 경우 철기문화를 갖고 북방으로부터 온 유이민으로서 토착족인 허왕후세력과 연맹하여 그 영도세력을 쥐면서 토착족과 결혼하고 자기는 스스로 천신족이라 하면서 각처에서 부족국가를 건설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⁷⁾. 수로신화의 골격이 신라의 혁거세 신화에 비하여 천강의 요소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2차 유이민 중의 한 세력으로 보면서, 수로왕은 정복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9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새로운 유이민 중에서 한 세력을 선택하고 그에게 신성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결속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추대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¹⁸⁾ 즉 수로왕으로 상징되는 왕족은 2세기 중후반무렵에 낙랑지역에서 도래한 유이민세력 중의 하나로서, 2세기 중후반에 後漢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낙랑지역으로부터 2차유이민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락국의 성립을 2세기 중후반경으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락국의 성립을 2세기경으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시기까지 김해지역이 9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위에서 살핀 바처럼 변한의 형성시기가 늦어도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에 해당되므로 변한의 선진적 정치집단인 구야국의 형성을 2세기로 볼 수는 없다. 수로집단은 철기문화인으로서 9간사회로 표현되는 김해지역의 청동기사회를 통합하여 가락국을 형성했던 정치집단이었으므로¹⁹⁾ 김해지역의 철기문화로 보아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를 가

16) 남재우, 앞의 논문, (2005), 94~100쪽

17) 김철준, 「신라상고세계와 그 기년」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76), 72쪽.

18) 김태식, 앞의 논문, (1998), 40쪽

19) 이영식, 앞의 논문, 2002, 5쪽

락국의 형성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허왕후의 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수로왕 탄생 및 허왕후 결혼설화 전체를 후대 祭儀의 기록으로 평가하여 허왕후를 神靈과 결혼하는 祭儀를 實修하는 해변의 空唱巫女로 이해하는 설이 있다.²⁰⁾ 허왕후가 실제로 아유타국에서 온 것을 인정하여 아유타국을 일본에 있던 한 가락국의 분국으로 보아 본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돌아온 왕녀로 보기도 하고,²¹⁾ 인도 아요디아 왕국이 타이 메남강 가에 건설한 식민국인 아유타야에서 온 왕녀²²⁾, 인도 아요디아국에서 중국 사천성 안악현으로 집단 이주해 살던 허씨족 중에서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온 소녀²³⁾라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허왕후가 김해지역으로 올 때 가져온 물건 등을 고려하여 중국이나 낙랑지역과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즉 허왕후집단을 낙랑에서 온 2차유민이거나, 또는 수시로 왕래한 상인집단으로²⁴⁾, 중국계 관직이나, 바다를 건너오면서 중국물품을 가져온 점 등으로 보아 중국과 관련있는 세력으로 이해되기도 하며,²⁵⁾ 허왕후가 배에 신고온 호화로운 문물 즉 ‘漢肆雜物’을 서북한지역의 한문화계통의 선진문물로 추정하여 허왕후가 서북한지역으로부터 도래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²⁶⁾ 즉 漢계통의 문물들이 김해의 회현리패총, 양동리고분군, 대성동고분군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 貨泉, 銅鼎, 漢式鏡 등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허왕후가 토착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²⁷⁾

이상으로 보아 대부분의 견해는 수로왕과 허왕후가 이주민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북방으로부터의 도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허왕후의 경우 중국과 관련지어 서북한 지역으로부터 왔

20) 三品彰英, 『增補日鮮神話傳説の研究』, (東京: 平凡社, 1972), 344쪽.

21)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연구』, (북한: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22) 이종기, 『가락국탐사』, (서울: 일지사, 1977), 99~100쪽.

23) 김병모, 「가락국 수로왕비탄생지」 『한국상고사학보』 9, (1992).

24) 김태식, 앞의 논문, (1998), 21~26쪽, 40쪽.

25) 백승충, 앞의 논문, (2001), 97쪽.

26) 이영식, 앞의 논문, (2002), 5쪽

27) 김철준, 앞의 논문, 72쪽

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수로왕과 허왕후는 동일한 세력이 있거나 동일한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락국기」의 내용에 九千이 권유하는 결혼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나 수로왕이 “내가 여기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요, 나의 배필이 되는 것도 또한 하늘의 명령이니 그대들은 염려치 말라”하고 留天干에게 명하여 허왕후를 맞이하라는 것으로 보아, 수로왕은 허왕후가 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으로 보아 추측 가능하다.

나머지 수로신화와 허왕후신화의 체계화 과정이나 신화의 불교적 윤색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2. 金首露神話의 체계화과정

「駕洛國記」의 수로신화는 네 가지 신화소(천강, 난생, 혼인, 그리고 등극)에 걸쳐서 골고루 진술하고 있어 다른 어떤 건국신화보다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²⁸⁾ 이것은 후대의 가필과 윤색이 거듭된 결과이다.²⁹⁾

- 5) 자줏빛 끈이 하늘로부터 드리워 땅에 닿아 있었다. 끈이 내려와 있는 곳을 찾아가니 붉은 보자기로 싸인 금빛 상자가 보였다. 열어보니 해와 같이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중략) 열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날 동이 틀 무렵 무리들이 다시 함께 모여 상자를 열었더니 알 여섯 개가 변하여 사내아이로 되었는데 용모가 매우 훌륭하였다. 나날이 성장하여 십여 일이 지나자 신장이 아홉 자나 되었다.(중략) 그 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처음으로 나왔으므로 이름을 首露라 하였다.(중략) 나라 이름을 大駕洛이라 하였다. 또한 伽耶國이라고도 일컬었으니, 곧 6가야의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三國遺事』 卷 第2 紀異 第2 駕洛國記)

28) 김열규, 「가락국기의 신화적 탐색」 『인문연구논집』 5, 동의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44쪽.

29) 金杜珍, 「가야 건국신화의 성립과 그 변화」 『한국학논총』 19, (1996), 2~9쪽.

수로신화의 현전하는 형태는 『三國遺事』의 「가락국기」이다. 하지만 수로신화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고려 문종대의 「가락국기」이다. 현존하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는 일연이 간략하게 줄여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文宗代의 「가락국기」 또한 그 이전의 자료를 참조하였을 것이다.³⁰⁾ 『古記』, 『開皇錄(曆)』, 『三國史記』의 김유신열전, 김유신의 玄孫인 金長淸이 찬한 『金庾信行錄』 10권, 「金庾信碑文」 등이다.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은 「김유신비문」과 金長淸 편찬의 『金庾信行錄』 10卷을 참조하고 있으므로³¹⁾ 김유신전에 보이는 가락국신화는 7세기까지는 성립되었을 것이다. 김유신비문은 문무왕 13년(673)에 김유신이 죽자 ‘碑를 세워 업적을 기록하게’³²⁾ 하였으므로 비를 만든 것은 이 무렵일 것이기 때문이다.

김장청이 쓴 『김유신행록』은 8세기 말엽에 쓰여진 책이다.³³⁾ 『김유신행록』 이전의 기록이 『開皇錄(曆)』이다. 『개황록』은 『삼국유사』의 王曆과 가락국기의 居登王代 및 멸망기사에서 인용되고 있다. 金庾信, 文明王后 등 가야계 후손의 정치적 비중이 절정에 달하고 金官小京을 설치하기도 한 文武王代를 전후한 시기에 수로신화를 비롯한 가락국의 역사가 일단 문자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황록』의 편찬시기는 신라 문무왕대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황록』은 난생담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왕력에 金卵이

30) 2장 2절의 ‘김수로신화의 체계화 과정’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의논문, 「가야의 건국신화와 제의」에 84~89쪽에서 서술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31) 김유신 열전에서는 수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가락국기에 보이는 建武 18년 개국설과 구지봉설화를 간략하게 적고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 편자의 언급처럼 행록 10권의 내용에는 번잡한 기록이 많아 쓸만한 것을 추려서 쓴 까닭일 것이다.

32) 『三國史記』 卷 第43 列傳 第3 金庾信(下).

33) 김장청은 김유신의 玄孫이다. 혜공왕 6년(770) 金融의 난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김유신의 후손이 사형에 처해졌으나 伸宥되었는데 김용이 바로 그 후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장청은 김유신계가 몰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복권을 위한 목적으로 행록을 지었으므로 770년 이후 즉 8세기 말엽으로 볼 수 있다.(李基白, 「김대문과 김장청」 『한국사시민강좌』 1, (서울: 일조각, 1987), 111~112쪽)

金氏가 되었다는 성씨내력담이 있으므로 성씨취득으로 구체화되는 계보의식에 따라 김씨세력의 개입에 의해 건국신화가 체계화되었던 것이다.³⁴⁾ 따라서 ‘김해 김씨’ 성의 기원은 적어도 7세기 중반 문무왕 때에는 정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661년에 문무왕이 즉위하면서 首露王廟 제사에 대해 내린 制旨³⁵⁾에서 왕 자신과 수로왕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야의 건국신화는 삼국통일기에 들어서 체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로신화의 모든 내용이 통일기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구지가, 난생담 등의 고대적 신화요소들은 일찍부터 김해지역에서 전승되어왔을 것이다. 수로신화는 난생담으로 전해오다가 가락국이 멸망하면서 전승력을 상실했다. 그러다 통일기 무렵 가야김씨세력의 성씨 취득을 계기로 가락국 왕력인 『開皇錄』이 편찬되었던 것이다. 김알지신화와 유사성에서도 찾아진다. 김해 김씨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주 김씨의 시조라고 하는 김알지신화와 유사한 형태로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바닷가로의 천강난생요소³⁶⁾가 황금궤 난생요소로 바뀌게 된 것이라든지, 『개황록』에서 金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金이라 한다는 것도 금궤에서 나왔다하여 성을 김씨라 한다는 김알지의 신화에 기원을 둔 듯하다. 김알지 신화의 자주빛 구름이 자춧빛 줄로 구체화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가락국기형 수로신화는 수로→김수로의 전환무렵 특히 경주김씨 시조인 김알지 신화의 신성요소를 받아들여 장황하고 화려한 서사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34) 박상관, 『신라가야 건국신화의 체계화과정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1999), 95쪽.

35) 『三國遺事』 卷 第2 奇異 第2 駕洛國記에 “신라의 제30대왕 法敏이 龍朔 원년 신유년(661) 3월에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伽耶國 元君의 9대손인 仇衡王이 우리나라에 항복할 때에 데리고 온 아들 世宗의 아들인 率友公의 아들 庶云 匪干의 딸 文明王后가 곧 나를 낳으신 분이다. 이런 연유로 원군은 나에게 15대 시조가 되는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던 나라는 이미 오래전 없어졌으나 장사를 지낸 능묘는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 종묘에 합하여 계속 제사지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36)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魚山佛影條에는 “옛날 하늘의 알이 해변에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이분이 곧 수로왕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수로신화가 과도하게 수식된 것은 가락국기형 수로왕 신화의 서술주체가 수로집단이었다³⁷⁾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수로를 새삼 조상으로 숭배하던 후대 신라의 가야김씨 세력이었다. 가락국기형의 수로신화가 형성된 시기는 『가락국기』가 쓰여질 당시³⁸⁾가 아니라 가야계 김씨가 김씨성을 획득하고, 정치세력화되었던 통일기 이후였던 것이다. 즉 수로신화가 최초로 문자로 정착된 것이 『開皇錄』이었던 것이다.

『개황록』의 편찬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³⁹⁾ 특히 『개황록』은 김유신가문의 후예들에 의한 현실적 목적에서 편찬되었다고 보아 해공왕대(8세기)의 이른바 미추왕릉사건 이후가 적당하다는 견해⁴⁰⁾가 주목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황록』은 김유신, 문명왕후의 존재와 관련하여 가야왕실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찬되었던 것으로, 통일기 혹은 문무왕대로 보는 것이 옳다. 그후 가야왕실의 후손들이 金官小京에 거주하였으므로 그들은 차츰 지방에 거주하는 귀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 乘岫이나 望山島와 같은 주변지명을 덧붙인 구체적 인 신화로 완성되었던 것이다.⁴¹⁾

따라서 수로신화의 현전하는 형태는 『三國遺事』의 「가락국기」이지만 가락국기가 처음 쓰여진 것은 고려문종대였다. 하지만 문종대의 「가락국기」는 당대에 기술된 것은 아니라, 이전의 기록물인 『開皇錄』이나 김장청이 쓴 『김유신행록』을 참조했을 것이다. 『개황록』은 가락국세력이 신라의 王姓과 같은 김씨성을 취득한 이후 가야 김씨의 정

37) 이강욱, 「수로신화의 서술원리의 특수성과 그 현실적 의미」 『가라문화』 5, (1987) 165쪽.

38) 문경현은 수로신화는 가락국기가 쓰여졌던 고려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삼국유사의 현장적 연구』,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990) 352쪽).

39) 이영식, 「‘가락국기’의 사서적 검토」 『강좌 한국고대사』 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187~191쪽.

40) 이영식, 앞의 논문, (2002), 191쪽.

41) 김태식, 앞의 논문, (1998), 41~42쪽.

치력을 강화시킬 현재적 필요성 때문에 서술된 것이었다. 김유신의 죽음(671년)으로 김유신의 비문이 만들어졌고, 이와 비슷한 시기인 7세기 중엽 문무왕대에 김씨의 시조였던 김수로와 가락국의 일대기가 『개황록』으로 편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8세기 말엽에 김유신계가 몰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복권을 위한 목적으로 행록이 편찬되었다.

3. 許黃玉神話의 체계화과정

가락국 건국신화에서 허황옥신화는 수로신화와 함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6) 갑자기 바다의 서남쪽 모퉁이로부터 붉은 돛을 단 배가 진홍빛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으로 향해오고 있었다.(중략) 왕후는 산너머의 별포 나루터에 배를 매어두고 상륙하여 높은 고개에 올라가 쉬었는데,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서 폐백으로 삼아 산신령에게 바쳤다. 그 나라에서부터 시종하여 온 신하[媵臣]가 두 사람이었는데, 申輔와 趙匡이라고 하였고, 그들의 처 두 사람은 慕貞과 慕良이라고 불렸다. 따로 노비가 도합 20여명이었고, 가지고 온 각종 비단과 의복, 금·은·주옥과 각종 구슬, 보물과 그릇들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중략)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許이고, 이름은 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입니다.” (중략) 8월 1일에 왕이 왕후와 수레를 함께 타고 돌아오는데, 왕후를 따라왔던 신하 부부도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수레를 탔다. 중국 상점의 갖가지 물건(漢肆雜物)들도 모두 수레에 실어 서서히 궁궐로 돌아왔다.(『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가락국기조)
- 7) 금관 호계사의 파사석탑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이었던 시절, 세조 수로왕의 왕비인 許皇后, 이름은 黃玉이라는 분이 東漢 建武 24년 戊申(48년)에 서역의 阿踰陀國으로부터 싣고 온 것이다. (중략) 제8대 鎰知王 2년(452) 임진년에 이르러 그곳에 절을 세웠고, 또 王后寺를 창건하였는데, 지금[고려]까지 복을 받들고 있다. 아울러 남쪽의 왜적을 진압하였으나, 모두 本國 本記에 보인다.(『삼국유사』 권 제3 탐상 제4 금관성 파사석탑조)

허황옥신화는 수로신화와 달리 불교적 윤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로신화와 마찬가지로 허황옥신화도 위의 기록이 원형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허황옥은 불교의 권위를 빌어 신성화 관념을 모색해 갔다. 전승되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변화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허황옥신화의 원형은 가락국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결혼담은 건국신화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가락국 건국 당시에는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온 여자와 수로의 결혼이라는 정도의 줄거리만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다 그 이후에 허황옥신화로 체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사료에서 “바다의 서남쪽 모퉁이로부터” 도래했다든지, “서역의 아유타국으로부터”라는 기록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

허황옥신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전승되어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허황옥신화의 전승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불교적인 윤색과 수로왕과의 혼인담이다. 허황옥 신화의 중심 모티브는 수로왕과의 결혼이기 때문이다.

허황옥신화가 가락국기의 모습으로 체계화된 것은 신라 문무왕대로 추정된다. 전설에서 살핀바와 같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가락국기』를 줄여서 채록한 것이다. 가락국기는 『開皇錄』을 참고하였다. 『개황록』은 가락국세력이 신라의 王姓과 같은 김씨 성을 취득한 이후 가야 김씨의 정치력을 강화시킬 현재적 필요성 때문에 서술된 것이었다. 김유신의 죽음(671년)으로 김유신의 비문이 만들어졌고, 이와 비슷한 시기인 7세기 중엽 문무왕대에 김씨의 시조였던 김수로와 가락국의 일대기가 『개황록』으로 편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허황옥신화가 구체화된 것도 신라 문무왕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김유신비문에서 수로를 소호금천씨의 후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단서가 된다. 즉 黃은 黃帝이고 黃은 黃玉과 같은 의미⁴²⁾이므로 허황옥도 사실은 황제 즉 소호금천씨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도

42) 諸橋轍次, 1986, 『大漢和辭典』 卷12, (日本: 大脩館書店, 1986), 947쪽.

있다.⁴³⁾ 이렇게 보면 가락국 수로왕 신화에 대한 일차적 정리는 물론 현재 전하는 허왕후 신화의 모습도 신라 문무왕대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가야 왕족의 외손으로서의 혈통을 스스로 인정한 문무왕 본인의 혈통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무왕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⁴⁴⁾

문무왕이 혈통의 신성성을 강조했던 이유는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으로서 이전의 왕들과 구분되는 혈통적 요소로서 자신의 변별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문무왕은 부계혈족의 시조신화에 모계혈족의 건국, 시조신화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삼국통일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가야 출신의 김유신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옛 가야지역민을 회유하는 의미도 내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무왕은 가야가 멸망한 지 1세기가 지난 시기에 삼국을 통일한 왕이 자신의 외가혈통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그 조상의 왕묘를 보수하고 제례를 정비했던 것이다.⁴⁵⁾

결혼 모티브가 만들어진 것도 신라 중대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⁴⁶⁾ 통일이 이후 김유신, 문명왕후 등 가야계 후손의 정치적 비중이 절정에 달하고 금관소경(680년)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위상제고차원에서 가락국 건국신화의 정당화 작업을 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수로신화를 비롯한 가락국의 역사가 문자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무왕대 전후에 편찬되었던 『개황록』이라 볼 수 있다.⁴⁷⁾ 그리고 개황록이 수로왕을 중심으로 편찬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해볼 때 무열왕-문무왕 당시의 왕실은 자신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과 중첩된 혼인관계에 있었던 가락국의 가계를 고양하는 작업을 시도했고, 허왕후의 결혼도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⁴⁸⁾ 허왕후와 함께 등장하는 媵臣

43) 백승충, 앞의 논문, (2001), 98쪽.

44) 이강옥, 앞의 논문, 145쪽.

45) 이강옥, 앞의 논문, 147~149쪽.

46) 김태식, 앞의 논문, (1998), 42쪽.

47) 김태식, 앞의 책, 71~72쪽.

48) 이광수, 앞의 논문, 185쪽.

의 존재 즉, 신보와 조광의 관직인 泉府卿과 宗正監과 같은 중국 관명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중국 문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시기, 즉 중대이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유타국과 불교적 윤색이 이루어진 것도 교종불교가 성하여 신라 수도 경주에 불국토 사상이 유행하고 금관소경의 우월성도 강조되던 무렵 즉 신라 중대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⁹⁾

그리고 위의 사료 7)에서 보이는 것처럼 허황옥이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이 왜의 침략을 막았다고 한 것도 문무왕대와 관련이 깊다. 문무왕대에 왜병을 진압할 목적으로 感恩寺를 창건하고 있는 것이나, 당나라의 침입에 맞서 四天王寺를 건립하고 있는 것은 문무왕대에 호국을 위한 사찰건립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 가락국의 건국신화가 정리되면서 파사석탑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⁵⁰⁾

이상으로부터 허황옥신화가 체계화된 것은 신라 중대시기 문무왕대로 볼 수 있다. 허황옥신화는 처음의 가락국 건립당시에는 미지의 먼 이국에서 배를 타고 온 신비로운 여인과 수로왕이 결혼했다는 골격만이 성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삼국통일 이후 가락국 세력이 신라와 왕성인 김씨성을 취득하고 가야 김씨의 정치력을 강화시킬 현재적 필요성 때문에 『개황록』이 편찬되었다. 문무왕 또한 가야 왕족의 외손으로서의 혈통을 스스로 인정한 문무왕 본인의 혈통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무왕의 의식 때문에 김수로신화와 함께 허황옥신화도 체계화되었던 것이다. 이후 고려 문종 30년인 1076년에 이르러 창사연기설화와 같은 몇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금관지주사에 의해 글로 편찬된 것이다.

이러한 전승과정을 통하여 체계화된 허황옥신화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가락국의 형성과정과 관련된 역사적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허황옥집단은 가락국의 형성에 참여했던 정치집단이었다. 둘째, 허황옥 세력은 토착세력이 아니라 유이민세력이었다.

49) 김태식, 앞의 논문, (1998), 42쪽.

50) 백승충, 앞의 논문, (2001), 120쪽.

문제가 되는 것은 허황옥세력이 어디로부터 도래했는지의 문제이다. 신화에서는 아유타국이라 기록되어있다. 가락국신화에서 허황옥의 출신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유타국’, ‘중국 상점의 갖가지 물건(漢肆雜物)’ 등이다.

아유타국설에 대해서는 1절에서 살핀 바처럼 이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외에 허황옥의 인도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불교적 윤색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불교 東漸의 신앙이 가락국 전설과 결부된 것⁵¹⁾, 『勝曼經』의 주인공인 승만부인이 아유타국의 왕비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허황후가 아유타국의 공주로 표현된 것⁵²⁾으로, 허황옥은 아유타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불교와 관련하여 윤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유타국은 승려가 윤색한 것이고 일본의 북큐슈에 있던 가라소국이 가라본국에 여자를 바치고 진귀한 물건을 공물로 바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⁵³⁾

이외에 아유타가 駕洛國記에 등장하는 것은 ‘印度’와 동일시되는 의미, 즉 신라 중대와 고려 초기 사이에 불경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경 속에 군데군데 들어있는 ‘아유타’를 ‘인도’와 동일시하면서 특정 사찰에서 삼입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은 통일신라 이후 형성된 佛國土 관념아래에서 한국이 인도와 인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⁵⁴⁾

가락국 건국시기에 인도와 김해 가락국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위에서 살핀 바처럼 허황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와서 가락국 건국에 참여했고 수로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전승되어 오다 통일기 이후 불교가 융성해 지면서 허황옥이 인도의 아유타국, 아니면 인도로부터 왔다고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허황옥의 출신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허황옥이 가져왔다는

51) 三品彰英遺撰, 『三國遺事考証』中, (日本: 塙書房, 1979), 335쪽.

52) 정경희, 1990 『한국고대사회문화연구』, (서울: 일지사, 1990), 321~323쪽.

53)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소사』,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90), 68~69쪽.

54) 이광수, 앞의 논문, 186~190쪽.

‘漢肆雜物’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낙랑지역에서 도래한 2차 유이민이거나, 또는 낙랑지역에서 이곳을 수시로 왕래하는 상인집단의 일족이라는 견해가 있다.⁵⁵⁾ 즉 허황옥이 가져온 중국의 물건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쓰게 하였다는 상세한 설명과 ‘중국 상점의 갖가지 물건’이라는 표현은 중국과의 물품교역을 많이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쓸 수 없을 정도로 상업적이라는 것이다.⁵⁶⁾ 중국 상점의 갖가지 물건이라는 언급 외에도, 泉府卿·宗正監·司農卿 등 중국계 관직이 보이고 있고, 옷, 필단, 금은주옥, 장신구 등 중국 물품을 많이 가지고 온 점 등은 허황옥 집단이 선진문물을 가진 북방 도래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⁵⁷⁾ 또한 허황옥이 배에 싣고 왔던 문물들이 김해의 회현리패총, 양동리고분군, 대성동고분군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 貨泉, 銅鼎, 漢式鏡 등에서 확인되고, 이러한 것들은 서북한 지역의 한문화계통의 선진문물로 추정되므로 허황옥집단은 서북한 지역에서 도래하였다는 견해도 있다.⁵⁸⁾

허황옥과 함께 도래한 申輔의 관직명은 泉府卿이었다. 천부경은 중국 고대의 관직으로서 泉府는 주대에 市稅를 받는 일과 公費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품을 사들여 다시 그것을 원가로 파는 일을 맡아 물가를 조절하던 관아이다.⁵⁹⁾ 이러한 관직이 가락국 형성시기에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허황옥과 함께 왔던 신보가 천부경이었다는 기록은 신보가 시장활동을 했던 상인이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허황옥은 상인집단으로서 가락국과 교역했던 집단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가락국 형성시기에 중국의 선진문물을 전파했던 곳은 서북한지역이었다. 따라서 허황옥집단은 서북한 지역에서 도래했으며, 가락국의 건국과정에서 수로집단과 함께 참여했던 정치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5) 김태식, 앞의 논문, (1998), 42쪽.

56) 김태식, 앞의 논문, (1998), 25쪽.

57) 백승충, 앞의 논문, (2001), 97쪽.

58) 이영식, 앞의 논문, (2002).

59) 『周禮』地官 泉府.

Ⅲ. 駕洛國의 祭儀

크고 작은 집단들이 신의 역사, 혹은 신과 사람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재현하는 모든 과정을 제의라고 한다.⁶⁰⁾ 신화는 선사 고대사회의 주인공들이 꾸려가던 세계의 질서와 원리이자, 이에 대한 자기 사회 나름의 가장 합리적인 풀이이지만, 제의는 이같은 질서 원리 풀이가 과거가 아니라 이들의 현재에 적용되고 작용하는 살아있는 것임을 재확인하는 행위이자 마당이다. 따라서 제의의 형태는 사회발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해 가락국에도 다양한 성격의 제의가 존재했다. 구간사회단계, 가락국단계로 나누어 제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九干社會段階

곡식을 뿌릴 때 거두어들일 때 등 한 해 중 특별한 절기에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제의는 무리 모두가 참여하는 집회이며 축제였다. 비교적 단순하고 명쾌한 한두 과정만으로 충분하였던 수렵·채집단계의 주술행위와 달리 농경 목축단계의 제의는 주재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보다 내밀하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의식절차를 만들어내고 시행하였다. 제의만을 주관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⁶¹⁾

가락국 이전의 김해지역은 九干社會段階였다. 이 단계에 있어서 제의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는 가락국기의 서술처럼 나라이름도 없었고, 임금이나 신하의 칭호도 없었고, 9간이 다스리던 사회였다.

구간사회에서의 제의는 禊浴행사와 구지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는 3월의 계육일⁶²⁾에 수로왕을 추대했다는

60) 전호태, 「신화와 제의」 『한국사상사의 과학적 이해를 위하여』, (서울: 청년사, 1997), 14쪽.

61) 전호태, 위의 책, 20~21쪽.

62) 계육일이란 禊裕하는 날이다. 계육일은 언제나 3월 上巳일이다. 상사일은

기록이 보인다. 계육이란 禊飲 禊飲宴이라고 한다. 계는 祓禊란 말이다. 불계는 齋戒沐浴하여 심신을 맑히고 천지신명에게 禳災求福의 致誠을 드리는 祭儀라고 한다.⁶³⁾ 계육은 재생과 부활의 관념에 기초하여 행해졌던 고대사회의 제의이기도 했다. 어렵고 길었던 겨울을 극복하고 만물이 부활하는 봄날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복돋아 주어야 한다는 기원이 담긴 제의였다. 계육일이 수로왕의 등장에 부쳐지게 된 것은 계육제라는 3월의 연중행사가 가지는 의미가 새로운 왕자의 탄생이라는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⁶⁴⁾ 신라의 시조신 박혁거세의 탄생도 3월의 첫째날인 계육일인데, 東泉에서 목욕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났다는 기록⁶⁵⁾을 통해서도 계육제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다.

구지가 또한 구간사회 당시의 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간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라는 가락국기의 기록은 당시 제의의 실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수로의 등장을 묘사하고 있는 구지가는 구간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제의였던 것이다.

구지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북의 존재의미와 구지봉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간적인 배경이 된 구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곳’으로 새겨 큰 곳, 즉 큰 제례가 거행되던 봉우리란 의미였다.⁶⁶⁾ 이 봉우리에서 구간들이 구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시에 제의를 행했던 신성한 장소였던 것이다. 신은 九干 등에게 “봉우리 꼭대기를

3월중 첫 巳日을 말한다. 巳日이란 매년 일정한 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魏晉이래로 상사일을 3일로 고정시켰다. 우리 민속에서도 3월 3일을 삼짇날이라 하여 小名節로 삼고 있어 그 유래가 오래다(정중환, 「가락국기의 건국신화」 『가야문화』 4, (1991), 111~112쪽)

63) 丁仲煥, 앞의 논문, (1991), 112쪽.

64) 이영식, 「가야인의 정신세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서울: 혜안, 2001), 458쪽.

65) 『三國遺事』 卷 第1 紀異 第1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66) 김화경, 「수로왕 신화의 연구」 『진단학보』 67, (1987), 139쪽.

정중환, 앞의 논문, (1991), 115쪽.

파서 흙을 모으며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봉우리에서 파낸 흙을 모으는 행위는 공사행위를 의미한다. 봉우리에서 공사를 했다면 그것은 신이 머무는 사당이나 신에게 제향을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⁶⁷⁾ 이로 볼 때 구지가의 배경인 구지봉은 구간들이 회의를 하거나 제의를 행했던 신성한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북은 시조를 지상에 드러내게 하는 신성동물로서 구간집단이 숭앙하는 재래의 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북은 물과 관련된 동물이다. 그런데 구지봉이라는 산과 연결되고 있는 것은 가락국의 건국 신화가 거북이 바닷가에 낳은 알에서 수로가 태어났다는 원고형의 신화에서 수로의 신성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천강신화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천강난생은 그 출자와 관련지어 건국주의 신성성을 표방하는데 더 적절한 신화적 요소이기 때문이었다. 거북으로 볼 때 구간 등이 구지봉 위에서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구지봉 아래 일정한 岸上이나 강변에서 계곡집회를 하는데 구지봉위에서 聲氣가 있어 그곳으로 무리들이 옮겨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⁶⁸⁾ 김해지역은 바닷가를 배경으로 성장한 집단이었음이 틀림없으므로 거북이 재래의 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뒤 가락국으로 발전하면서 천강적 요소가 강한 건국신화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수로강림의 실제 무대는 구지봉보다는 거북이 상징하는 해변이 원형에 가깝다.⁶⁹⁾

구지가는 수로왕의 등장 이전인 구간사회에서 불리어져 오던 주술적 노래였다. 구지가는 당시의 제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지가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거북의 머리는 남성을 상징하는데 여성의 상징인 땅에 구멍을 파는 행위와의 결합은 생산과 번영을 기원하는 일종의 제의형태이다.⁷⁰⁾ 기우제·지신제와 수로 탄강설화와 결합한 ‘공동제의’이다.⁷¹⁾ ‘집단강우축술제’ 혹은 ‘풍

67)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서울: 집문당, 2001), 135쪽.

68) 정중환, 앞의 논문, (1991), 114쪽.

69) 백승충, 「가야의 개국설화에 대한 검토」 『역사와 현실』 33, (1999), 120쪽.

70) 주채혁, 「거북신앙과 그 분포」 『민간신앙』, (서울: 교문사, 1989), 208~223쪽.

71) 岡山善一郎, 「龜旨歌傳承の一考察」 『朝鮮學報』 119・120, (1986), 588~

요제'이다.⁷²⁾ 구지가는 잡신들을 물리치는 逐鬼謠로서 신성성을 지닌 수로의 탄강에 앞서 부정과 잡신을 제거하는 祓除의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는⁷³⁾ 등의 견해가 있다.

이처럼 구지가를 수로왕의 탄강과 관련시키기도 하지만 구지가의 본래 모습은 옛 김해만의 갯벌과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던 구간사회인들이 해신에게 풍어와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주술의 노래였던 것이었다.⁷⁴⁾ 구간 등이 불렀다는 구지가는 集團降雨呪術 또는 祈雨祭의 변종으로서 원시농경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했던 제의였다. 구간을 비롯한 2~300여명이 구지봉에 모여 구지가를 부르며 공동제의를 벌이는 협동체제는 수로왕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집단제의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간사회의 풍요제에서 불려지던 구지가는 가락국 성립후에 수로왕을 맞이하는 영신제의를의 노래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가락국 건국신화의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해신은 천신으로 해산물은 (우두)머리로 둔갑하였다. 처음 나타난 우두머리가 수로였다.⁷⁵⁾

이로보아 구지가는 구간사회의 제의였다가 가락국 성립후에 수로왕의 탄생과 관련되어 건국신화의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神鬼干이었다. 신귀간은 집단의 수장이라기 보다는 제사를 주관하는 司祭長. 이어서 기술된 구지봉에서의 대왕맞이곳의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집단적 제신행사가 빈번했고 이를 관장하는 전문직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부족이 공동으로 행하는 제신행사를 주관하는 사제장이 신귀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구간은 지상의 공간을 방위나 거리에 따라 분할하고 바닷가와 산중으로 나누어 통치하였으며 제신행사를 주관하는 사제장을 따로 두어 국가규모에 해당하는 큰 집단을 다스렸던 것이

593쪽.

72) 성기옥,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1)」 『울산어논문집』 3, (1987), 75쪽.

73) 김화경, 앞의 논문, 140쪽.

74) 이영식, 앞의 논문, (2002).

75) 이영식, 앞의 논문, (2002).

다.76) 신귀간이 허황옥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집단을 대표하고 있었던 사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駕洛國段階

구간사회단계에서 가락국단계로 발전하면서 제의형태도 변화되었다. 단위사회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사회 내부, 사회와 사회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빈번해지고 격렬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체제가 형성되었다. 대내외적인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권력기구로 국가적 정치집단이 나타났으며, 이념장치로 신화가 성립되었다. 이시기의 제의는 신화재현의 장이자 국가적 정치집단의 모태였다. 따라서 제의가 지니는 정치집회나 사회축제기능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제의만을 주관하는 종교직능자⁷⁷⁾와 그 보조자들의 지위도 달라졌다. 종교직능자는 단순한 종교전문가라기보다는 소속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주는 신의 대리자와 같은 존재, 제사장으로 인식되었다.

가락국 형성시기인 三韓의 天君은 무당이이라기 보다는 제사장에 가깝다. 따라서 國邑에서 친군이 천신에게 제사지내는 것과 別邑에서 무당이 귀신을 섬기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귀신에 대한 제사는 무당이 지낼 수 있지만 天神에 대한 제사는 국읍에서 세운 천

76) 서대석, 앞의 책, 132~133쪽.

77) 신념체계(belief system)나 의례와 더불어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종교공동체인데, 종교공동체의 중심에는 초자연적 세계와 인간세계를 교류시키는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종교적 과업을 수행하는 여러 부류의 인간들이 있다. 이들을 총칭하여 종교학이나 인류학에서는 **religious specialist**, **religious functionary**, **religious practitioner**라고 하며, 이를 宗教專門家, 宗教職能者, 宗教機能人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자료들은 한국 고대에도 巫覡, 日官, 占卜者 등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종교직능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고대인의 종교생활 및 신앙내용을 이끌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세속사회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서영대, 「한국고대의 종교직능자」 『한국고대사연구』 12, (1997) 203~204쪽.

군 한 사람만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여튼 국읍에서는 천신을 제사하는 제사권을 장악하여 祭天儀禮를 행하고 이를 통해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활용되었다.⁷⁸⁾ 국읍에서 천군을 세워 천신을 주제케 한 단계는 거의 국가형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신에 대한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신앙적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정당성과 생산과 관련되어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반이 되는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데 그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초기국가단계에 이르렀던 斯盧國이나 백제국에서는 제천의례 뿐만 아니라 始祖廟에 대한 제사도 행해졌다. 제천의례는 계급사회로의 이행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계급사회에서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지배자의 정당성은 하늘에서 얻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권위를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또한 대국인 백제국이나 사로국은 천의 대리자인 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냄으로써 일원적이며 배타적인 제사권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늘에 대한 막연한 의례에서 天孫降臨의 천손에 대한 제사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 국가체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⁹⁾

가락국에서도 제천의례와 시조에 대한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다.

- 8) 항상 5월에 파종을 끝마친 뒤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무리를 지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며 술을 마시는데 밤낮으로 쉬지 않았다. 그 춤은 수 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르며 땅을 밟고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손과 발이 서로 잘 어울렸는데 그 리듬이 마치 (중국의) 鐸舞와 흡사함이 있었다. 10월에 농사일을 끝마친 뒤에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귀신을 믿는데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를 이룸하여 天君이라고 불렀다. 또한 여러 나라마다 別邑이 있는데 이를 이룸하여 蘇塗라고 하였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어달고 귀신을 섬겼다.(『三國志』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條)

- 9) 弃辰은 진한과 더불어 뒤섞여 살았다. 역시 성곽이 있었다. 의복과 거

78)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서울: 한길사, 1994), 161~162쪽.

79) 최광식, 앞의 책, 332~333쪽.

처는 진한과 같았고, 언어와 법과 풍속이 서로 비슷하였으나 귀신을 제사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三國志』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條)

위의 기록에 의하면 5월 곡물의 파종을 마친 뒤 제의가 행해졌다. 음주와 가무, 그리고 뛰어오르는 춤의 동작은 농작물의 성장과 풍작의 기원이라는 주술의례로 해석될 수 있다. 10월에도 5월의 파종제와 같은 제의가 행해졌다. 추수감사제와 같은 성격이었을 것이다. 제사는 국읍과 소도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로 보아 가락국시기에도 이와같은 제의가 존재했을 것이다.

5월에 행해진 음주와 가무, 그리고 땅을 밟고 뛰어오르는 동작은 농작물의 성장과 풍작을 기원하는 주술의례였으며, 술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춤은 어린 싹이 건강하게 자라 오르는 모습을 흉내내며 염원했던 것으로 노래와 함께 성장을 부추기는 呪術이었을 것이다. 10월제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으로서 농작물을 수확을 허락한 신에게 감사의 폐백을 올리고, 5월의 제의와 같이 음주가무를 행했을 것이다. 다만 이때의 음주가무는 신의 노고를 위로하며 수확을 축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었을 것이다.⁸⁰⁾

위의 사료 9)은 가야사회가 이미 시조신에 대한 독자적인 관념이 있었을 정도로 발달한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변한에서 귀신을 제사지내는 것이 진한과 달랐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시조신은 수로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자연신에 대한 숭배와는 달리 다른 시조신에 대한 숭배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⁸¹⁾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고대국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三國志』韓傳에 보이는 대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소국에서의 천신에 대한 제사가 마침내 대국에서는 하늘의 자손에 대한 제사로 발전된 것이다.⁸²⁾

80) 이영식, 앞의 논문, (2001), 459~460쪽.

81) 백승충, 앞의 논문, (2001), 112쪽

82) 최광식, 앞의 책, 194쪽.

- 10) 이달에 곧 施德 高分을 보내 任那 執事와 日本府 執事を 불렀더니 모두 말하기를 “설날이 지나서 가겠다”라고 하였다(『日本書紀』 卷第19, 欽明紀 4年(543))
- 11) 봄 정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任那執事와 日本府執事を 불렀으나 제사 때가 되었으므로 제사를 마친 후에 가겠다고 하였다. (『日本書紀』 卷 第19, 欽明紀 5年(544))

위의 사료는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보여주는 근거이다. 사료 10)에서 설날이 지나서 가겠다는 것은 사료 11)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월 제사 때문이므로 위의 기록은 백제 성왕의 소환에 대해 안라국을 비롯한 가야 제국은 正月 祭祀를 이유로 사비회의의 참가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정월에 행했던 제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길이 없으나 『삼국사기』 祭祀志에 보이는 신라의 정월제사로는 추하추동의 시조묘에 대한 제사와 정월의 2일과 5일에 지내는 五廟에 대한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加耶諸國이 지냈던 제사는 시조묘에 대한 제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가락국에도 이러한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행해졌을 것이다.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국가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라의 경우 남해왕대의 시조묘제사는 국가와 왕실의 조상제사였다. 공공의례로서의 시조묘제사는 국가와 왕실의 조상제사였다. 그리고 시조묘제사는 신왕의 즉위의례때에 중요하게 거행되었는데 새로이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시조왕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신이 시조왕에서 비롯된 정통의 왕이며, 또 시조왕이 지닌 神力을 부여받아 자신 역시 천신적 존재이고 농업신적 존재의 顯現이며, 따라서 자신이야말로 생산의 풍요와 사회의 질서를 책임질 존재이므로 자신의 지배행위는 정당함을 내외에 공포하는 의미였다.⁸³⁾

가락국 또한 시조묘제사가 즉위의례 때에 거행되었을 것이다. 또한 신년제사가 왕좌의 권리를 매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신왕이 즉위하지 않더라도 즉위 의례와 거의 같은 의미를

83)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서울: 지식산업사, 2003), 87쪽.

가지면서 왕은 의무이자 권리로서 매년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수로왕 다음 거등왕이후부터 제사를 지내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12) 거등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便房을 설치한 뒤로 구충왕대에 이르기까지 330년동안 제사를 거행함에 한 번도 어김이 없었다. 그러나 구충왕이 왕위를 잃고 나라를 떠난 후 용삭 원년 신유년(661)까지 60년 사이에 이 사당의 제향은 간혹 빠짐이 있었던 듯하다(『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駕洛國記條)

이로보아 수로에 대한 제사는 계속되었으며, 가락국의 제사일은 정월 3일과 7일, 5월 5일, 8월 5일과 15일, 허왕후 기일인 3월 3일, 수로왕 기일인 3월 23일 등이었다.⁸⁴⁾

5월에 행하던 수로묘의 제례는 위의 사료 8)에서 보이는 과중제가 궁중의 제의로 상승되었으며, 8월에 행하던 제례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이었다.⁸⁵⁾ 정월에 있었던 제사는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祭祀志에 정월의 2일과 5일에 지내는 五廟에 대한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야제국이 지냈던 제사 또한 시조묘에 대한 제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사가 이루어진 곳은 위의 기록에서처럼 便房이거나, 首露王廟였다.

IV. 결론

이상에서 가락국의 건국신화와 제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화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미와 신화의 체계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의는 駕洛國 이전의 단계와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가락국 건국신화는 역사학자들에게 가락국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로 가락국의 형성시기는 기원전후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6관설’을 토대로한 가야연맹체설은 부적절

84)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駕洛國記條.

85) 김화경, 앞의 논문, 136쪽.

하며, 오히려 가야 각국이 건국신화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락국 건국의 주체세력은 위만조선의 몰락과정에서 남하하거나, 서북한 지역에서 도래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首露神話는 지금의 현전하는 형태로 체계화된 것은 7세기대였다. 김유신비문과 『開皇錄』이 만들어진 시기였다. 이시기는 金庾信, 文明王后 등 가야계 후손의 정치적 비중이 절정에 달하고 金官小京을 설치하기도 한 文武王代를 전후한 시기에 수로신화를 비롯한 가락국의 역사가 일단 문자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부터 전승되어온 난생담, 구지가와 같은 古記類의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許皇玉神話 또한 김수로신화와 비슷한 시기에 체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혼담은 건국신화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락국 건국 당시에는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온 여자와 수로의 결혼이라는 정도의 줄거리만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다 삼국통일 이후 가락국 세력이 신라와 왕성인 김씨성을 취득하고 가야 김씨의 정치력을 강화시킬 현재적 필요성 때문에 『개황록』이 편찬되었다. 문무왕 또한 가야 왕족의 외손으로서의 혈통을 스스로 인정한 문무왕 본인의 혈통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무왕의 의식 때문에 김수로신화와 함께 허황옥신화도 체계화되었던 것이다. 이후 고려 문종 30년인 1076년에 이르러 창사 연기설화와 같은 몇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금관지주사에 의해 글로 편찬된 것이다.

가락국에도 다양한 형태의 祭儀가 있었다. 九干사회단계에는 禊浴행사와 구지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구지가는 원시농경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했던 제의였다. 즉 구간사회의 풍요제의에서 불려지던 구지가가 가락국 성립 후에는 수로왕을 맞이하는 迎神祭儀로 전환되었다. 제의는 神鬼干이 주재했다. 駕洛國단계에는 祭天儀禮와 始祖에 대한 제사가 시행되었다. 시조제사의 대상은 首露였을 것이다.

The Founding Myth and Ritual Ceremony of Karagkug(駕洛國)

Nam, Jae-Woo || Changwon University
njw@changwon.ac.kr

The founding myth and ritual Ceremony of Karagkug have been examined. For the myth, the historical meaning and the processes that the myth was organized have been examined, and ritual ceremony is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Karagkug.

The founding myth has been studied in various ways. Especially in the area of history, through the examination, the foundation period of Karagkug, the political development processes of Kaya, the main faction for founding Karagkug, the Buddhistic features of the national myth, and how to organize the national myth of Karagkug have been focused on.

The founding myth of Karagkug was organized as follows. The Su-ro(首露)Myth was organized like the present form in 7th century. Kim Yoo-sin(金庾信) Epitaph and 『Kaehwangrok(開皇錄)』 were made in the period. In the period, political influence of the

descendant from Kaya(加耶) gained summit, and, before and after King Moon-moo(文武王), who ordered the installation of Kumgwansogyoung(金官小京), it was highly possible to record the history of Karagkug such as Su-ro Myth

It was also highly possible to organize Heo Hwang-ok(許黃玉) Myth in the similar period of Kim Su-ro Myth. Bscouse a marriage story is important part in a founding myth, at the time of founding Karagkug, maybe, there was only plot which told about the marriage between Kim Su-ro and a woman who came from abroad by boat. After the unification of Three Nations, the fraction from Karagkug gained the family name 'Kim(金)' and 『Kaehwangrok』 was compied because of the need for reinforcing the Kims' political influence. Also, King Moon-moo, who acknowledged the blood as a descendant in mother's line, organized the myths of Kim Su-ro and Heo Hwang-ok to emphasize his own sacredness. Later, in 1076, 30th year of King Moon-moo of Goryeo(高麗), some other tales were included into the myth, and then the myth was written by Kumgwanjijoosa(金官知州使).

There were ritual ceremony in various form in Kagarkug. At the period of nine-patriarch society, it could be known by Kaeyok(禊浴) Ceremony and Koojiga(龜旨歌). Koojiga was typically a religious service at the period of the Primitive Agricultural Society. In other words, Koojiga, which sung in the religious service for richness of nine-patriarch society(九干社會), was converted into the ritual ceremony for calling King Su-so's spirit since the foundation of Kagrakug. Singwigwan(神鬼干) had contorl over the religious service. At the period of Karagkug, the religious services of the rite for heaven and the founder were

performed. Probably, the ritual ceremony of the founder's subject was Su-ro.

Key words : Kaya(加耶), King Moon-moo(文武王), Kaehwangrok(開皇錄), Koojiga(龜旨歌), Kaeyok(禊浴), Singwigwan(神鬼干), nine-patriarch society(九干社會)